

혹한기 거리 나앉은 노숙인들...“체계적인 지원 필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동행 취재 광주 노숙인 20여명 위생·안전 위험 거리생활 고집해 적극 개입 어려워 2월까지 매일 저녁 보호 활동 나서

지난 15일 오후 8시 찾은 광주 남구 남광주시장 지하 주차장. 매서운 한파 속에서 60대 노숙인 여성은 낡고 숨이 다 죽은 이불을 덮고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센터) 상담요원이 다가갈 말을 걸자 그녀는 “왜 귀찮게 하느냐”며 거칠게 반응했다. 핫팩, 따뜻한 음료, 빵 등 필요한 물품을 건네려 했으나 “다시 오지 말라”며 단호히 거절했다.

같은 날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노숙하고 있는 또 다른 여성 A씨는 익숙한 듯 상담요원들을 맞았다. 그는 방한용품과 음식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4년째 거리 생활을 하고 있다는 A씨는 센터에 입소해 임시 보호를 받았지만 다시 거리로 나와 노숙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A씨는 “근처에 동생집이 있어서 괜찮다, 여기가 편하다”고 말해왔다.

한 남성 노숙인 B씨는 “돈이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본가인 곡성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B씨는 상담요원들이 묻는 말에 자세하게 대



지난 1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상담요원들이 한 노숙인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답했다. 다만 상담요원들의 센터 입소 권유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민해 보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였다.

이날 광주센터 상담요원들과 현장 보호 활동을 진행해 본 결과 겨울철 추운 거리 생활을 하는 이들은 한파와 위생·안전 문제에 노출된 상태였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에는 약 20여명의 노숙인이 거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센터는 경찰과 지자체 신고, 시민 제보, 그리고 직접 현장을 돌며 노숙인을 발굴하고 있다.

센터에 입소를 희망할 경우 20일간 임시 보호를 제공한 뒤, ‘무등노숙인쉼터’나 ‘광주희망원’과 연계해 장기적인 관리를 돕는다. 자활을 선택한 경우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로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는 일자리를 알선하고, 모텔·여관 등에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이를 거절하고 거리 생활을 고집하는 탓에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 신용 문제 등으로 신용을 밝히는 것을 꺼리고 일부는 정신적인 문제도 앓고 있어 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입소 후에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거리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센터는 주·야간 보호 활동과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도시락 나눔을 통해 거리 노숙인에게 센터 소개 및 보호시설 이용을 유도하거나 간식, 방한용품,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센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백지선 센터 상담요원은 “대부분의 노숙인은 개인 생활을 중시해 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소 뿐만 아니라 원하는 방식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해도 노숙인들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이 어려워 난감할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유형대 센터 상담요원은 “노숙인 숫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강제로 (지원을) 추진할 수 없는 탓에 매일 보호 활동을 통해 건강관리와 물품 나눔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광주 지역 노숙인은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다시 20여명으로 늘었다. 노숙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 구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시서기센터는 오는 2월28일까지 ‘노숙인 동절기 집중 보호 활동’을 통해 주 3일 도시락 나눔과 매일 저녁 보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글·사진=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검찰, ‘업자에 금품 요구’ 순천시의회에 징역 8년 구형

민원 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사업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넘겨진 순천시의회에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A 순천시의회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억9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

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아파트 시공업자 대표에게 공사 진행을 막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 입당원서 작성과 관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괴롭히고 공무원들을 압박해 공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했으며 본인의 차기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라고 시키는 등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A의원은 협박 혐의는 인정하되 공갈·강요·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구입한 뒤 차용을 받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매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액수도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강요와 공갈은 없었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말했다.

A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민현기 기자

참사 추모식날 ‘고스톱’... 화순 공무원 4명 적발

지역 건설업자·팀장급 공무원 등 접대성 도박 가능성... 수사 착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날 화순군 공무원들이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화순 소재 한 건설업자 개인 사무실에서 판돈 60만원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화순군 공무원 4명과 지역 건설업자 관계자 1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건설분야와 관련된 부서 시설직

으로 4·5급 간부와 6급 팀장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박판을 벌인 이날은 화순군 전·현직 공무원 8명과 화순 거주민 5명 등 총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이 엄수된 날이었다.

화순군은 건설업자와 유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의 첩보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도박이 주기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과 일부러 돈을 잃어주는 접대성 도박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G마크
 에이스엠
 GORE-TEX
 DREAM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태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곱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